



인 맞은 사람의 수 = 144,000인

요한은 천사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의 수가 144,000인이라고 들은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

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1-4).

144,000인은 누구인가?

성경이 구속받은 자들을 두 부류, 즉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와 144,000인의 무리로 구분하고 있다.

144,000인의 인치는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십계명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은 신실함을 보여 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나타내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를 구별한다. 인치는 사업은 은혜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모일 것이다.(계 7:2-8 ; 14:1-5).

하나님의 인()은 구속의 표(Mark)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선택하고 그분의 인도아래 복종하는 자들은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성령의 영향력아래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신자들 간의 관계의 인 또는 표시로 말씀된 거룩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다.(겔 20:12, 20).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겔 20:12)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있을 특별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인 받은 신자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같이 그분의 백성에게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구속의 “첫 열매”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끌어 올려져 승천하게 될 것이다.(단 12:1, 2; 계 1:7).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백성들의 여정을 보여 주셨는데 곧 세상 위에 높이 올려 뻗혀진 곧고 좁은 길을 여행하는 남은 무리들이 까마득히 먼 곳에 자리 잡은 하늘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계시였다. 이들이 바로 144,000인이다.(초기, 13-20).

“이 사람들은 …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계 14:4).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뿔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 -초기문집, 279.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초기문집, 280.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계시록 7장 4절은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사도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요한이 하늘로

부터 들은 음성은 곧 '인'을 받은 자의 수가 144,000인이라는 사실이다. 계시록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계 1:1)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144,000인을 보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사천이 섰는데 ..." (계 14:1)라고 기록한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3).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144,000인들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십사만사천인밖에"는 부르지 못한다. 여기에 보면 "십사만사천인밖에"라는 숫자의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단은 이 진리를 상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사단은 이 진리가 정확하게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하여 거저된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일 것이다.

한국 재림교회는 1930년대에는 144,000인은 실제적인 수효이며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무리가 될 것이며 이미 죽은 자들도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4,000인에 포함된다고 가르쳤다.

그 후 십사만사천인은 실제적인 수효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함)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144,000인이라고 가르쳤다.

지금은 144,000인은 상징적인 수라고 가르친다.(SDA 기본교리 참조)

실제 수라는 증거(예언의 신)

"생사 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각 시대의 대쟁투, 613).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빨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초기문집, 279).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초기문집, 280).

위의 말씀에서 144,000인이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면 굳이 '수효는 찼다', '헤아려 인 찼다', '보석은 헤아려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상징적 수인데 헤아려 '인'을 치고 수를 세어 '인' 받은 자들이 144,000인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유리 바다 위에는 십사만사천인이 정방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초기문집, 17).

정방형의 모양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모양이다. 또 초기문집 20페이지를 보면, "십사만사천인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예루살렘성 기둥에 금 글씨로 '십사만사천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분명히 금 글씨로 십사만사천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들이 실제의 이름이 아닌 상징이라고 볼 수 없다.

인치는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됨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초기문집, 254).

셋째 천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 즉시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한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인치는 사업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죽은 자도 포함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에게 처진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품성이 다시 변화되는가? 죽음은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계 14:13).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 14:13 하단).

죽은 자도 144,000인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 / 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